

런해주신 분께서, 역시 자네가 모르는 법칙으로 비르지니
 에게 또 다른 행복을 준비해두시지는 못하리라고? 우리가
 무(無)에 있을 때, 설령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
 더라도, 우리 존재에 대한 관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었
 을까?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어둡고 텅빈 존재 안에 있는
 지금, 죽음을 통해 그 존재로부터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
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견할 수나
 있을까? 하느님께서도 인간처럼,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신
 량함을 펼칠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, 작은 지구라는 우리의
 땅이 필요하실까? 그렇다면 그저 인간의 생명을 죽음의 터
 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뜨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바다
 속에는 우리와 관련된 생명체로 가득하지 아니한 물은 단
 한 방울도 없는데, 우리 머리 위를 떠도는 수많은 별들 중
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다? 뭐라고! 엄
 밀히 말해 우리가 있는 곳에만 지고의 지성과 신의 신량함
 이 있을 리는 없다네. 그렇다고 광휘로이 빛나는 저 무수히
 많은 천체와, 그 천체를 둘러싸고 있는 저 광대무변한 빛의
 들판에, 폭풍우가 오고 밤이 와도 결코 그 빛을 가리지 못
 하는 저곳에, 그저 허무의 공간과 영원한 무(無)밖에 없으
 리라는 것인가? 만약 우리가,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아
 무것도 주지 못했던 우리가,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셨
 던 전능에 감히 한계를 부여한다면,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
 영도가 끝나는 지점에, 삶이 죽음과 싸우고, 순수가 폭정과